

크라잉넛 “얇고 길게 음악해 온 25년...잘했다 싶네요”

1995년 흥대 클럽 ‘드럭’서 첫 공연
국내 1세대 펑크록 밴드
“공연하는 게 노는 것 같아
기교·허세 없는게 사랑받는 이유”



데뷔 25주년을 맞은 밴드 크라잉넛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 드럭레코드 작업실에서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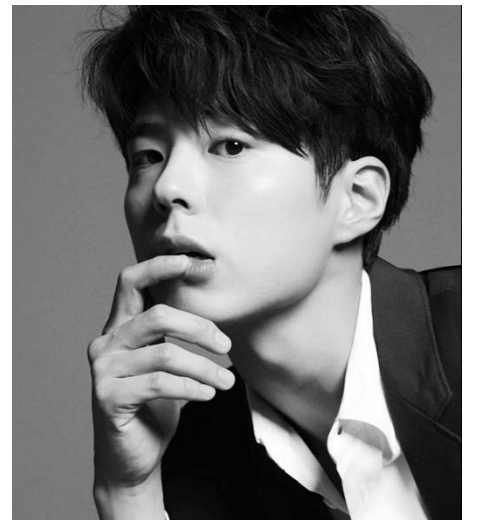
펑크 음악을 오래 하면 사람이 맑아지는 걸까. 영화 ‘매드맥스’ 악당 임포탄의 군대 선봉에서 거칠게 기타 줄을 뜯으며 모래바람을 맞는 ‘기타맨’ 같은 거라 상상했다. 그러나 실제로 본 펑크록 밴드 크라잉넛은 해맑고 수줍은 젊은 아이 같았다.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연습실에서 만난 이들은 “무대 위에서 그렇게 논다고 해서 밖에서도 그러면 그게 어디 사람 사는 꼴이겠냐”며 웃었다. 박윤식(메인보컬·기타), 이상면(기타), 한경록(베이스), 이상혁(드럼), 김인수(아코디언·키보드)로 구성된 크라잉넛은 올해로 활동 25주년을 맞은 국내 1세대 펑크록 밴드다. 1995년 흥대 클럽 ‘드럭’에서 공연하기 시작해 이듬해 드럭이 제작한 편집앨범 ‘아워 네이션 1’(Our Nation 1)으로 데뷔했다.

“슈가맨 같은 방송을 보면 우리보다 한참 나중에 음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라고요. 저희는 그래도 맨바탕 없이 꾸준히 지금까지 음악을 하고 있었어요. ‘이만하면 잘했다, 그래도 잘했네’라는 생각이 들어요.”(박윤식) 크라잉넛은 지금까지 여덟장의 정규앨범을 비롯해 미니앨범(EP) 등 음반 수십장을 발표했다. 그간 걸어온 발자취를 모아 오는 8월 열여섯곡이 담긴 베스트앨범을 발표하고 25일에는 수록곡 ‘줄지 아니한가’를 선공개한다. “이전 음반을 들으면 ‘나 왜 이렇게 연주를 못했지?’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이번 기회에 실제로 공연에서 하듯이 옛 노래들을 새롭게 녹음해 앨범에 담았어요.”(한경록) 박윤식은 “옛날에는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잘 몰랐다가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버릴 거야 하는 느낌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도 박윤식은 기교가 없는 게 크라잉넛이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유인 것 같다고 자평했다. 그도 그럴 것이 ‘말달리자’나 ‘록셈부르크’ 등 멜로디가 복잡하지 않고 소리를 내지르는 크라잉넛 노래는 많은 이에게 ‘노래방 피날레 곡’으로 꼽힌다. 가사 또한 ‘날 것’ 같으면서도 서정적이다. 지친 청춘에게 ‘닥치고 내 말 들어 / 우리는 달려야 해’(말달리자)라고 일갈하는가 하면 ‘부어라 마셔라 춤을 춰라 /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진 듯’(내 인생 마지막 토요일)이라며 같이 놀자고 외친다. ‘방황하며 춤을 추는 불빛들 / 이 밤에 취해 흔들리고 있네’(밤이 깊었네) 같은 시적인 가사와 ‘보고 싶다 예쁜 그대 돌아오라 / 나의 궁전으로’(명동콜링)처럼 애절한 노랫말도 눈에 띈다. “땀팔까. 저희는 허세가 없어요. 요즘 세대가 말하는 ‘스웁~’이요. 자기를 과장해서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거 같은데 저희 그런 게 없고, 또 없고 싶어요.”(이상면) 기교도, 스웁(swag)도 없다는 이들은 음악의 방향성도 딱히 없다고 했다. 이상혁은 이같이 말하면서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가 계속 바뀐다. 노래를 만들 당시에 느낀 것들을 음악으로 담는다”고 했다. 그대 “아직 음악이 재미있다”고 말하는 크라잉넛에게 ‘열정’만큼은 넘칠 만큼 있는 듯하다. “음악 처음 시작했을 때랑 똑같이 지금도 무대에서는 게 재미있고 설레요. 외모는 늙었지만요(웃음). 멤버 모두가 공연하는 게 노는 거 같다고 생각해요.”(한경록) 지난 25년간 수많은 무대를 거친 이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무엇이었을까. “멤버들을 입을 모아 1996년 ‘스트리트 펑크쇼’와 2007년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라고 답했다.

“‘스트리트 펑크쇼’는 드럭을 벗어나서 한 첫 야외 공연이었어요. 흥대 거리, 명동 거리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같이 그냥 놀았어요. 다 이빙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흥분해서 무대장치를 부수더라고요. 다들 놓고 싶은 걸 같은 게 있었던 거죠.”(박윤식)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에서는 배를 채우던 관객 수백명이 크라잉넛의 ‘말달리자’ 전주가 나오는 걸 듣고는 양손에 핫도그와 맥주를 든 채 무대를 향해 뛰어왔다고 한다. 이상혁은 “백만대군이 쳐들어오는 것 같았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한 시간 반 동안의 인터뷰에서 지난 25년 세월을 되돌아본 이들의 표정에선 뿌듯함이 엿보였다. 이상혁은 “우리 모두가 ‘얇고 길게 가자’다”라며 “어느 정도 얇고 길게 25년간 음악을 한 거 같은 앞으로도 오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박보검, 8월 31일 입대
해군 문화 홍보병 합격



배우 박보검(27)이 해군 문화 홍보병으로 오는 8월 31일 입대한다. 소속사 블루썸엔터테인먼트는 25일 “박보검 배우가 해군 문화 홍보병에 합격했으며 이에 오는 8월 31일 입대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보검은 지난달 모집한 해군 군악·의장대대 문화홍보병 견반 파트에 지원했으며, 이달 초 실기와 면접시험을 치렀다.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은 영화 ‘원더랜드’와 드라마 ‘청춘기록’이 될 전망이다. 소속사는 “입대 전까지 촬영을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방시혁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의장
포니정 혁신상 상금 2억원 기부

방시혁(사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의장이 포니정 혁신상 상금으로 받은 2억원을 사회에 기부한다. 빅히트는 25일 방 의장이 제14회 포니정 혁신상을 받았으며 상금 2억원의 기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기부처는 논의 중이다. 방 의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포니정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소명 의식을 느낀다”며 “최초에 음악이 나를 왜 행복하게 했는지를 잊지 않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앞서 2일 재단 측은 슈퍼스타 방탄소년단(BTS)을 키워낸 대한민국 콘텐츠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준 공로로 방 의장을 올해 포니정 혁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포니정 혁신상은 현대자동차를 설립한 고(故)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애칭인 ‘PONY鄭’(포니정)에서 이름을 따 2006년 제정한 상이다. 문화, 외교,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사고로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연합뉴스



‘#살아있다’ 침체 극장가 살려냈다

개봉 첫날 20만명... ‘남산의 부장들’ 이후 5개월만

유아인·박신혜가 주연한 좀비 영화 ‘#살아있다’가 개봉 첫날 20만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이후 최고 성적이다. 25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전날 개봉한 ‘#살아있다’는 20만4천71명이 관람했다. 이날 전체 관객 수는 23만3천963명으로, 매출액 점유율도 86.3%에 달했다. 개봉 첫날 스코어가 20만명을 넘긴 것은 지난 1

월 설 연휴를 앞두고 개봉한 ‘남산의 부장들’ 이후 5개월 만이다. 당시 ‘남산의 부장들’은 25만2천28명을 동원했다. 2월 이후 개봉한 영화들의 개봉 첫날 스코어는 ‘정직한 후보’ 10만 9879명, ‘블로켓’ 9만6638명,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7만7962명으로 추락했다. 6월 들어 처음 개봉한 ‘침입자’가 4만9578명으로 출발했고, ‘결백’은 2만3050명, ‘사라진 시간’이 3만2370명이었다. /연합뉴스



‘#살아있다’

개업·성업 안내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p>사랑방공인중개사사무소</p> <p>북구 운암동 미라보3차@상가동 3호 아파트, 빌라, 주택, 상가, 토지, 임야매매·전월세 각종부동산매매 상담 신용분위</p> <p>☎ 062)574-8924, 010-9332-8184</p>	<p>마루전통한방차전문점</p> <p>나주시 영산포로184-1(영산포우체국 앞) 신전대방탕, 생화탕, 대추탕, 오미자차, 생강차 각종과일주스, 구워낸 가래떡과 초창을 드립니다</p> <p>☎ 061)333-6567, 010-7200-6567</p>	<p>뮤엄영어동림캠퍼스</p> <p>북구 동림동 푸른마을4단지상가1층 1:1 맞춤 커리큘럼 뮤엄영어에 있습니다. 원장 개인지도 초·중등생 수시모집</p> <p>☎ 062)266-1221, 010-2425-3093</p>	<p>동양철학원</p> <p>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 옆길) 사주, 격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p> <p>☎ 062)224-7687, 010-2611-7687</p>		
<p>국수나무광주용봉점(비엔날레)</p> <p>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p> <p>☎ 062)526-5475, 010-8621-5959</p>	<p>(유)신화로프</p> <p>본점: 나주시 청동길 244 PP로프, 안전로프, 형광로프, PE로프, 비닐, 천막, 안전장 전국최저가도·소매</p> <p>☎ 061)335-2301~2, 010-3429-6400</p>	<p>퀵타로카드</p> <p>지하철 금남로5가역 4번출구 앞(신한은행 옆) 궁합, 사주, 신수, 취직운, 택일, 격명, 운수판단, 인생상담</p> <p>타로마스터 ☎ 010-3640-6429</p>	<p>신신예술의집</p> <p>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p> <p>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p>만福당</p> <p>동구 계봉로 184번길 5-9(대인시장내) 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p> <p>☎ 062)959-0680, 010-4602-0680</p>	<p>석당화랑</p> <p>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p> <p>대표 이석재 ☎ 062)222-3118</p>
<p>고전방</p> <p>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p> <p>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p>미가한우명가</p> <p>나주시 풍물시장2길 54(영산포버스터미널 뒷편) 생고기, 생고기비빔밥, 떡갈비정식</p> <p>☎ 061)333-0505, 010-4390-3366</p>	<p>무크광주세정점</p> <p>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2층 258호 화사한 봄 신상품 대량 입고 남·여 20~40%세일(일부품목제외)</p> <p>☎ 062)370-9258</p>	<p>한성꽃화원</p> <p>나주시 나루로71(송월동 LG화학 앞) 근조·축하화환, 동·서양관, 관엽전국배달</p> <p>☎ 061)334-3200, 010-3623-6921</p>	<p>자연모기발안병원헤어샵</p> <p>동구 롯데백화점 옆, 금남전자상가 5층 자연모 넘어 개발 맞춤 전문! 중형기발을 자연모 신상품으로 중요 리폼·대여가능</p> <p>☎ 062)227-8084, 010-3608-2943</p>	<p>초대화랑</p> <p>동구 궁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p> <p>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p>장어수산</p> <p>북구 서암대로 88(신안리 앞) 무항생제 장어사육 포장배달·전국 택배배송, 선물포장드립니다. 신용분위</p> <p>☎ 062)412-1961, 010-5828-1961</p>	<p>우리식당</p> <p>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장부 환영)</p> <p>☎ 062)381-0066, 010-3085-0140</p>	<p>개성전통한방삼계탕</p> <p>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 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p> <p>☎ 062)383-3454, 010-2106-0424</p>	<p>천상일월태주명</p> <p>나주시 남외동 33-3번지 남고문무원 종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p> <p>☎ 010-2617-3635</p>	<p>대성각중화반점</p> <p>동구 무등로 306-6(구 시청 뒤 도로변) 각종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전화주문시 신속배달</p> <p>☎ 062)430-5342</p>	<p>박당화랑</p> <p>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대 및 감정</p> <p>대표 박환승 ☎ 062)222-6866</p>